

《福州方言拼音字典(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에 나타난  
文白異讀의 時代層次와 地域性 研究\*

李海雨\*\*

<目次>

- |                         |                        |
|-------------------------|------------------------|
| I. 이끄는 말                | IV. 韻母 文白異讀의 時代層次와 地域性 |
| II. 《福州方言拼音字典》의 文白異讀    |                        |
| III. 聲母 文白異讀의 時代層次와 地域性 | V. 맺는 말                |

I. 이끄는 말

19세기말 서양의 선교사들이 편찬한 중국 방언서는 당시 언어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방언 학자 游汝杰은 《漢語方言學導論(2000: 254-255)에서 19세기 선교사들이 편찬한 각종 방언서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양 선교사들의 방언학 저작은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기 중국어 방언의 자연스러운 口語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료이다. .... 연구의 심도와 범위에서 선교사들의 저작은 趙元任 이전의 중국학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6343).

\*\* 우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들 저작은 19세기 중국어 방언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 이들이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口語의 정확도는 동시대 여타 문헌자료가 따라올 수 없다.(西洋传教士的方言学著作是研究19世纪后半期至20世纪初期的汉语方言自然口語的最有价值的资料.....就研究的深度和广度而言, 传教士的著作都是远胜于赵元任之前的中国学者. 这些著作是研究19世纪汉语方言不可或缺的资料.....它们提供的自然口語的准确度是同时代其他文献资料不可比拟的.)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19세기말 서양 선교사의 방언 저작은 중국어 방언의 口語를 정확히 기술하였으며, 그 연구 저력도 당시 중국학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의 텍스트가 되는 《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1897년)는 19세기말 閩東方言의 대표지역인 福州方言을 기록한 字典이다. 이 자전은 중국어로 《福州方言拼音字典》(이하 《字典》으로 간단히 줄여 칭함)으로 번역되며, 19세기말 福州 지역민에게 福音 전파를 준비하고 활동했던 선교사 볼드윈(C.C. Baldwin)과 맥클레이(R.S. Maclay)가 공동으로 편찬하였다.

본 자전에는 8,311개의 한자가 수록되었으며 당시 口語로 사용되었던 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자전은 전통적인 중국 韻書의 표음방식인 反切에서 벗어나 서양에서 유행했던 역사비교언어학적 토양 속에서 福州 현지인의 발음을 로마자로 轉寫하였기 때문에 19세기말 북주방언의 생생한 발음을 수록한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자전은 繁體字는 물론 簡體字, 俗字, 民間 語彙를 수록하여 문자학은 물론 어휘학 방면에서도 상당한 참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字典》가운데 나타나는 文白異讀字만을 대상으로 19세기 文讀(글말, 독서음)과 白讀(입말, 구두음)의 음가에 반영된 福州方言의 時代層次와 기타 방언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地域性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上古音에서 中古音, 그리고 閩方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最古의 자료이며 17세기의 福州方言을 반영한 《戚林八音》(蔡士

泮·陳他 編纂), 여러 현대 중국어 방언, 그리고 필요시 韓日漢字音을 비교하면서 19세기말 북주방언의 時代層次와 地域性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인용되는 상고음과 중고음 및 주요 중국방언의 발음은 주로 《漢字古今音表》(1999)와 《漢語方音字彙》(1989)를 따르며 각종 閩方言에 대한 기초 자료는 《閩語研究》(1991)를 참고하고자 한다.

## II. 《福州方言拼音字典》의 文白異讀

전통적으로 文白異讀에서 ‘文’은 ‘글’이란 뜻으로 특히 古典을 읽는데 사용되는 독음인 文讀을 가리키고, ‘白’은 ‘말하다’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발음인 白讀을 말한다. 文白異讀이란 한 漢字에 대해 문독과 백독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섞여 있는 현상으로 방언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백독은 원래부터 민간에서 사용한 발음이고, 문독은 후대 각 방언의 규범적 역할을 했던 표준어(특히 唐代 수도이자 국제도시였던 長安의 中古音)의 영향으로 형성된 독음으로 古典을 읽는데 사용되는 識者層의 글말이다. 문독은 외래의 산물이며 지식층의 언어이지만 백독은 本地 민간인들이 고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토속적인 입말이다.

우리에게 그다지 주의를 끌지 못했던 文白異讀字를 갖고 방언의 시대층차를 분석한 노만(Norman 1979, 1991)은 중국어 역사방언학 연구에 큰 획을 긋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음가에 대한 시대층차뿐만 아니라 타 방언 혹은 韓日越 한자음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한 방언의 독특한 地域性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우리의 세대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되었다. 文白異讀字는 어음의 시대층차뿐만이 아니라 지역성까지 내포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문백이독과 같은 한 한자에 대한 다양한 음가는 한 방언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을 거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

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백이독은 한 한자의 음가에 대해 음절구조의 삼대요소인 聲母, 韻母, 聲調 가운데 한 요소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字典》에는 아래 7개 종류의 유형이 보인다.<sup>1)</sup>

- (1) 聲母가 文白異讀이고 韻母와 聲調는 文讀: ‘敵’ tik(文) t'ik(白)
- (2) 韻母가 文白異讀이고 聲母와 聲調는 文讀: ‘省’ ㄴseng(文) ㄴsang(白)
- (3) 聲母와 韻母가 文白異讀이고 聲調는 文讀: ‘株’ ㄷt'ü(文) ㄷtau(白)
- (4) 聲母와 聲調가 文白異讀이고 韻母는 文讀: ‘遠’ ㄴwong(文) hwong<sup>ㄴ</sup>(白)
- (5) 韻母와 聲調가 文白異讀이고 聲母는 文讀: ‘空’ ㄷk'ung(文) k'aeng<sup>ㄴ</sup>(白)
- (6) 聲調가 文白異讀이고 聲母와 韻母는 文讀: ‘濛’ ㄹmung(文) ㄹmung(白)
- (7) 聲母, 韻母, 聲調가 모두 文白異讀: ‘一’ ek(文) sioh<sup>ㄴ</sup>(白)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文白異讀은 《字典》의 모든 한자에 나타나지 않는다. 무작위로 《字典》의 chό 음절에서 chwang 음절까지 175字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어보니 4%에 해당되는 ‘倅擘樁鑣滋主爪’ 등 7字만이 文讀과 白讀을 모두 갖춘 文白異讀字에 해당되고, 그 밖의 96%에 해당되는 168字는 하나의 음가만 존재한다.

《字典》가운데 文白異讀을 모두 갖춘 표제자는 해설 부분에서 ‘read’와 ‘coll’이 반드시 있다. ‘read’는 ‘읽다’는 뜻으로 讀書音 즉, 文讀을 가리키며, ‘coll’로 표시된 부분은 ‘colloquial’의 줄임말로 ‘口語의’라는 뜻으로 일상생활 口頭語인 白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紅’字에 대해 “Read ㄷhung; coll ㄷeng”로 되어 있는데, ㄷhung은 文讀으로 국제음성기호로

1) 『字典』은 윌리엄 성조사전(Williams' Tonic Dictionary)의 성조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福州方言은 제2성(上上)과 제6성(下上)이 같으므로 7개 성조가 존재한다. 각 성조의 명칭과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다.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제5성	제6성	제7성	제8성
調類	上平	上上	上去	上入	下平	下上	下去	下入
例字	丹	胆	旦	答	谈	胆	淡	达
표기	ㄷtang	ㄷtang	tang <sup>ㄴ</sup>	tak <sup>ㄴ</sup>	ㄷtang	ㄷtang	tang <sup>ㄴ</sup>	tak <sup>ㄴ</sup>

[hup] 下平聲, ㄹëng은 白讀으로 국제음성기호로 [øŋ] 下平聲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ㄹëng 白讀에 속하는 ‘大紅, 銀紅, 糟紅, 桃紅, 紅赤, 有紅頭, 紅丹丹, 紅花’ 등에 해당되는 발음은 본문에 영문 해석과 함께 나열되어 있지만 한자는 같은 페이지 밑부분 注에 정리되어 있다. 文讀 ㄹhung의 발음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면 다시 ‘紅’을 표제자로 삼아 이에 해당되는 ‘紅花, 紅丹, 紅杏, 紅粉佳人’ 등의 발음은 본문에 영문 해석과 함께 나열되어 있고 한자는 페이지 밑 부분인 注에 열거되어 있다.<sup>2)</sup>

한 한자에 대한 文讀과 白讀의 不同은 단순한 음절구조상 성모, 운모, 성조의 다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른 어음층차를 반영하기도 한다. 문백이독의 시대층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문독은 역대 표준어(특히 唐代長安音을 반영하고 있는 후기중고음)와 음운적으로 일정한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백독이 문독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閩方言의 백독은 무려 上古音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Ting(1983)과 Norman(1991)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세기말 생생한 복주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字典》속에 나오는 文白異讀이 上古에서 현대까지 각 어느 시대의 음을 반영하고 있고 기타 방언과 구별되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Ⅲ. 聲母 文白異讀의 時代層次와 地域性

《字典》의 使用說明(Introduction) 가운데 표기법(Orthography)에 나타나는 자음(consonants) 관련 표기법과 국제음성기호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字典』의 한자는 먼저 ‘a, ch, ch’, e, h, i, k, k’, l, m, n, ng, o, p, p’, s, t, t’, u, w, y’의 발음순으로 배열한 후 각 알파벳 안에서는 성조, 즉 같은 음절의 한자는 上平, 上聲, 上去, 下平, 下去 순으로 나열되었다. 한자 가운데 만약 文讀과 白讀이 나뉘어 발음된다면 각각 그에 해당되는 발음기호 부분에 단어들을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字典》표기법: ch ch' h k k' l m n ng p p' s t t' w y  
 국제음성기호 : tʃ tʃh hʔ k kh l m n ŋ p ph s t th w j

위의 자음을 17세기 福州方言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最古의 閩方言 韻書인 《戚林八音》(蔡士泮·陳他 編纂)의 聲母 관련 15개 字母와 대응시켜보면 ‘曾[tʃ], 出[tʃh], 非[h], 求[k], 氣[kh], 柳[l], 蒙[m], 日[n], 語[ŋ], 邊[p], 波[ph], 時[s], 低[t], 他[th], 鶯[∅]’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중국 방언은 중고음(특히 각종 방언의 文讀일 경우)에서 분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9세기말 《字典》의 聲母 모습을 살펴려면 모든 중국 방언사 연구에 필수적인 중고음과의 대응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字典》聲母와 中古音 聲母 對應關係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字典》聲母와 中古音 聲母 對應關係

發音部位	字典	中古音
脣音	邊[p]	幫, 並, 滂, 非, 奉
	波[ph]	滂, 並, 幫, 奉, 非
	蒙[m]	明
舌尖音	低[t]	定, 端, 澄, 知, 透, 章, 徹
	他[th]	透, 定, 徹, 澄, 端, 知
	柳[l]	來
	日[n]	泥, 日
齒音	曾[tʃ]	精, 章, 從, 莊, 崇, 清, 知, 澄, 徹
	出[tʃh]	清, 昌, 初, 從, 心, 精, 書, 徹, 章
	時[s]	心, 生, 禪, 書, 邪, 船
舌根音	求[k]	見, 群, 溪, 匣
	氣[kh]	溪, 見, 匣
	語[ŋ]	疑,
喉音	非[h]	匣, 曉, 奉, 非, 敷
	鶯[∅]	影, 喻(以), 匣(云), 日, 微, 匣, 曉, 疑

위의 표 가운데 중고음의 脣齒音 ‘非, 敷, 奉’은 《字典》의 ‘邊[p], 波[ph], 非[h]’, 중고음의 설면과열음 ‘知, 徹, 澄’은 《字典》의 ‘低[t], 他[th], 曾[ʧ], 出[ʧh]’에 대응된다. 文白異讀의 관점에서 보면 중고음의 ‘非’와 ‘奉’이 《字典》의 ‘邊[p], 波[ph]’와 중고음의 ‘澄’과 ‘知’가 《字典》의 ‘低[t], 他[th]’로 각각 대응된 것은 白讀을 반영하고, ‘非[h]’와 ‘曾[ʧ], 出[ʧh]’는 文讀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성모의 문백이독에 나타나는 시대층차와 지역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에 이어진다.

1. 三等合口の 脣音

中國語 音韻學史에서 錢大昕이 ‘古無輕脣音說(상고음에는 경순음이 없다는 설)’라고 지적했듯이 상고음에는 輕脣音(즉 脣齒音)이 없었다. 脣音 幫[p], 滂[ph], 並[b], 明[m]은 上古音부터 前期中古音까지 雙脣音이었다가 後期中古音부터 三等合口 [-iɥ-] 앞에서는 輕脣音 非[f-], 敷[f-], 奉[ff-], 微[v-]로 변한다(Pulleyblank, 1984:63). 아래는 非系의 상고음, 중고음, 《字典》, 現代福州方言 그리고 기타 남방방언의 음가를 나열한 것이다.

	上古音	中古音	《字典》		福州		廈門		梅縣		南昌		蘇州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飛	pīwai	pīwəi	hi	puei	hi	puei	hui	pe	fī	pi	fəi	fi		
分	pīwən	pīwən	huŋ	puoŋ	huŋ	puoŋ	hun	pun	fun	pun	fən	fən		
斧	pīwa	pīwa	hu	phuo	hu	phuɔ	hu	phɔ	pu	fu	fu			
蜂	phīwɔŋ	phīwɔŋ	huŋ	phuŋ	huŋ	phuŋ	hɔŋ	phaŋ	phuŋ	fuŋ	foŋ			
飯	bīwan	bīwan	huaŋ	puoŋ	huaŋ	puɔŋ	huan	pŋ	fan	fan	ve			

위의 예에서 보듯이 非系에 대한 《字典》과 福州方言의 白讀은 上古音의 雙脣音 [p-, ph-]을 유지하고 文讀은 喉音 [h-]로 반영되지만 여타 남방방언에 속하는 梅縣方言, 南昌方言, 蘇州方言에서는 대부분 순치음인

[f-]와 [v-] 혹은 일부 쌍순음 [p-] [ph-]로 발음되고 있다. 福州方言이 속한 閩東方言 뿐만이 아니라 모든 現代의 閩南·閩中·閩北方言에는 唇音系統에서 唇齒音 [f-]와 [v-]는 존재하지 않는 一致性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閩方言이 다른 지역 방언과 달리 후기중고음의 輕唇音 [f-]음을 토착화된 [h-]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말의 복주 방언을 반영하는 《字典》에서도 文讀은 [h-]음이었다. 즉, 閩方言에서는 [f-]음을 찾을 수 없으므로 文讀에서 [p-, ph-](상고음, 전기중고음) → [f-](후기중고음) → [h-](현대 민방언)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후기중고음 [f-]가 [h-]음으로 아예 변환되어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字典》과 現代福州方言 白讀 [p-]는 상고음의 雙唇音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같은 南方地域의 方言일 지라도 객가어에 속하는 梅縣方言의 白讀은 [p-, ph-]를 유지하고, 文讀은 순치음 [f-]로 반영되고 있다. 吳語 계통인 蘇州方言은 중고음 微母의 [有聲性]을 그대로 유지하여 [v-]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 舌上音

錢大昕은 ‘古無舌上音說(상고음에는 舌上音이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王力(1980:610)은 先秦에서 隋唐까지 舌上音 知系는 端系 [t-]에 속하다가 五代에 이르러 舌面破裂音 [tr-] 音系(자관상 舌面破裂音이 없는 관계로 ‘r’로 표시함)로 분기되고 다시 宋代에는 [tc-] 音系로 변했다가 元代에는 일부가 권설음화 [tʂ-] 되어 明清에서부터는 모두 권설음으로 변하는 것으로 재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예에서 보듯이 《字典》의 白讀은 상고음 [t-]를 유지하고, 文讀은 대부분 [t-]를 보존하며 일부는 파찰음 [ts-] 혹은 마찰음 [s-]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上古音		中古音		《字典》		福州		廈門		梅縣		南昌		蘇州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中	tʃuŋ	trʃuŋ	tyŋ	toŋ	tyŋ	toŋ	tiɔŋ	taŋ	tsuŋ	tsuŋ	tsɔŋ					
長	tʃaŋ	trʃaŋ	tiɔŋ	touŋ	tuɔŋ	touŋ	tiɔŋ	tiu	tsɔŋ	tsɔŋ	tsaŋ					
丈	dʃaŋ	drʃaŋ	tiɔŋ	tiɔŋ	tuɔŋ	tauŋ	tiɔŋ	tʃ	tʃɔŋ	tʃɔŋ	zaŋ					
值	dʃək	drʃək	sik/tik	ti?	si?	ti?	tat/tit		tʃɛt	tʃɛt	zɿ?					
着	dʃək	drʃək	tsiɔk	tiɔ?	tsuɔ?	tuɔ	tiɔk	tio?/to?	tʃɔk	tʃɔk	zɔ?					

위의 예에서 보듯이 《字典》과 현대복주방언 그리고 廈門方言의 白讀은 모두 상고음의 [t-]系를 보존하고 있다. 비록 남방지역의 방언이지만 梅縣方言, 南昌方言, 蘇州方言은 모두 파찰음 [ts-] 혹은 蘇州方言에서는 중고음 澄母의 경우 [有聲性]을 보존하면서 마찰음 [z-]로 변하는 양상을 통해 閩方言은 타 방언에 비하여 知系에서 유일하게 상고음을 보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주방언의 경우 文讀은 대부분 상고음의 [t-]音系를 보존하고 있지만 일부 중고음의 설면파열음이 파찰음이 되어 [ts-]로 변하거나 심지어 ‘值’字의 경우처럼 마찰음 [s-]로 변하였다. 이는 지역적으로 복주방언은 민방언 가운데 비교적 吳語에 가깝게 접하고 있어서 ‘值’字의 文讀 [sik]은 吳語에 속하는 蘇州方言과의 言語接觸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知系의 歷史語音層次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上古	中古	宋代	元代	明清/現代
t-音系	→ tr-音系	→ te-音系	→ te-音系/ts-音系	→ ts-音系
↘ t-音系	↘ ts-音系	→	s-音系	
福州方言/廈門方言	梅縣方言/南昌方言/蘇州方言	일부 蘇州方言	일부 蘇州方言	일부 蘇州方言
	일부 福州方言 文讀	일부 福州方言 文讀		

### 3. 匣母

중고음에서 群母 [gh-]는 三等, 匣母 [ɣ-]은 一二四等に 나타나 相補

的인 관계를 이루어 李方桂(1971:14)는 이들 모두 上古音 \*[g-]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字典》의 文白異讀을 살펴보면 중고음 匣母 [x-]는 文讀 [h-], 白讀 [k-]로 발음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字典》	福州	厦門	梅縣	南昌	蘇州
文	白	文	白	文	白
猴	heu kau	heu kau	hɔ kau	heu heu	fiy
縣	hieŋ kaiŋ	kaiŋ	hian kuāi	ian	eien jiø
咸	haŋ keiŋ	haŋ keiŋ	ham kiam	ham	han fiɛ
銜	haŋ kaŋ	haŋ kaŋ	ham kã	ham	han jir 文 fiɛ 白
挾	hieŋ keik	kie?	kiap	kiap	eiet fiŋ?

위의 예에서 보듯이 중고음 匣母에 속하는 한자들이 福州方言과 厦門方言에서 白讀은 [k-]로 발음되어 비록 무성음화되었지만 상고음 \*[g-]의 [破裂性]을 유지하고 있다. 文讀 [h-]는 중고음 [ɣ-]가 무성음화되었지만 摩擦音 성분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19세말 복주방언을 반영하는 《字典》에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위의 閩東方言에 속하는 福州方言과 閩南方言에 속하는 厦門方言 이외에 閩中方言, 그리고 閩北方言에서도 ‘猴, 縣, 咸, 銜, 挾’의 白讀에 대해 거의 모두 [k-]를 유지하여 민방언의 보수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같은 남방지역 방언인 梅縣方言과 南昌方言에서는 梅縣方言의 ‘挾 [kiap]’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마찰음 [h-]로 반영되고 있다. 南昌方言에서 ‘縣 [eien]’의 설면음 [e-]은 개음 [-i-]의 영향으로 [h-]가 구개음화된 것이며, 蘇州方言의 경우 대부분 중고음 [ɣ-]의 [有聲性]을 유지하여 [fi-]로 반영되고 있으나 ‘縣 [jiø]’와 ‘銜 [jir] (文)’에서처럼 성모가 탈락되는 데까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匣母의 음가에 대한 어음층차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g- → y- → h- → h- → c- → ø  
 閩方言 白讀 中古音 蘇州方言 閩方言 文讀 南昌方言 蘇州方言  
 梅縣方言/南昌方言 梅縣方言

#### IV. 韻母 文白異讀의 時代層次와 地域性

##### 1. 虞韻의 三等合口

中古音 虞韻 三等合口에 속하는 《字典》의 文白異讀은 白讀 [-uo]와 [-ieu], 文讀 [-øy] 등 세 가지 음가가 존재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세 단계 층차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제1층	제2층	제3층
白讀	-uo	-ieu	
文讀			-øy

중국어 음운사에서 虞韻 三等合口の 음가는 상고음 \*[-iwo], 중고음 [-iu]로 각각 재구되는데, 위에서 보듯이 19세기의 복주방언 세 가지 음가는 각각 상고음층과 중고음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白讀 제1층의 [-uo]는 상고음 \*[-iwo]에서 직접 분화된 것이고, 白讀 [-ieu]는 중고음 [-iu]에서 중간에 [e] 음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3층인 文讀 [-øy]는 먼저 17세기 복주방언을 반영하는 《戚林八音》에 [-y]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7세기까지 충실히 중고음을 받아들였다가 복주방언 내부적으로 19세기 전에 [ø] 음이 첨가되어 결국 [-iu](중고음) → [-y](17세기 복주방언) → [-øy](19세기와 현대복주방언)의 층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字典》의 문백이독은 여러 어음의 시대층차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대복주방언에 이르기까지의 내부 음운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2. 侯韻

中古音 侯韻에 해당되는 《字典》의 白讀은 여타 지역 방언에서 발견되지 않는 민방언의 독특한 지역성뿐만 아니라 어음 발전 가운데 原始 閩方言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福州		厦門		梅縣	南昌	蘇州	長沙	北京		
	文	白	文	白	文	白					
頭	theu	thau	theu	thau	tho	thau	theu	dY	təu	thəu	
樓	leu	lau	leu	lau	lo	lau	leu	lY	ləu	ləu	
口	kheu	khau	kheu	khau	khə	khau	kheu	khieu	khY	khəu	khəu
母	mu	mɔ	mu	mɔ	bɔ	bu	mu	mu	mɔ	mɔ	mu
畝	meu	mu	məu	muɔ	bɔ		məu	məu	mY	məu	mu
牡	meu	mu	məu	mu	bɔ		məu	məu	mY	məu	mu

위의 예에서 보듯이 侯韻의 福州方言 文讀과 각 지방 방언은 [-eu], [-əu], [-əu]로 발음되어 충실히 중고음 [-əu]를 그대로 반영하든지 혹은 유사하게 발음되고 있다. 聲母가 唇音일 경우는 성모 자체가 음성학적으로 [+圓脣性]을 지니기 때문에 뒤따르는 모음에 영향을 주어 [u], [ɔ], [o]로 변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字典》, 現代福州方言, 厦門方言의 白讀은 주요모음에 [a]가 첨가된 [au]로 발음되어 중고음보다 앞선 음가임을 간과할 수 있다.

《字典》의 ‘畝’字 白讀 [mu]의 경우 현대북주방언에 이르러 [muɔ]로 변한 것은 [-u] → [-uɔ]의 변화과정을 밟은 것으로 현대북주방언 文讀 [məu]는 물론 북경어의 [mu]와 비교해도 어음층차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는 閩東方言 가운데 하나인 福州方言의 白讀 일부가 상고음층과 같이 매우 이른 시기의 어음을 반영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福州方言 자체 내 文讀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음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어음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는 북경어보다도 더 발전된 어음층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상 侯韻에 어음층차는 아래와 정리할 수 있겠다.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白讀	-au		-ɔ	-uɔ
文讀		-eu/-əu	-u/-ɔ/-o	

위의 제2층은 중고음에서 현대음까지 여러 시대를 거쳐 변하지 않은 안정된 음가층으로 文讀에 반영된 것이며, 제4층의 [-uɔ]는 복주방언 자체 내 白讀의 역사적 음운사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侯韻에 대한 제1층 [-au]는 지역적으로 여타 방언구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閩方言 지역의 白讀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侯韻의 上古音에 대해 원순음 \*[u](董同龢, 1983:275; 李方桂, 1971:52) 혹은 \*[-ɔ](王力, 1980:618)로 재구되고 中古音도 [əu] 혹은 [u]로 재구되어 《字典》, 現代福州方言, 廈門方言의 白讀 [-au]를 해석하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上古音 연구의 大家인 李方桂(1971:24)는 上古音에서 주요 모음 [u]를 지닌 東部와 侯部에서 \*u → \*ua로의 분열현상이 일어났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 그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東部字는 古韻에서 [a] 母音을 지닌 陽部字와 合韻한 것(예를 들어 老子)이 있다. 漢代에 이르러 合韻의 예는 더욱 많아지는데, 이것도 \*u → \*ua의 현상이지만 아마도 방언과 이후에 발생한 현상일 것이다. 환언하자면 방언 가운데 \*u가 -ng 앞에서도 분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약간 뒤진 것이다. 漢代에는 더 나아가 侯部와 [a] 모음을 지닌 魚部가 구별되지 않았다. 이것도 \*u → \*ua 및 뒤에 발생한 현상이다(東部字在古韻裏也有跟有a元音的陽部字合韻的(如老子)。到了漢代合韻的例子更多, 這也是\*u>\*ua的現象, 不過這也許是方言及後起的現象。換言之在方言中 \*u在-ng前也有分裂的傾向, 只是時間稍後。漢代更不能分辨侯部與有a元音的魚部。這也是\*u>\*ua的方言及後起的現象。)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주요모음 [u]를 지닌 東部字는 《老子》에서 주요모음 [a]를 지닌 陽部와 合韻하는 경우가 있으며, 侯部도 漢代에 이르러 [a] 모음을 지닌 魚部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주요모음이 \*u → \*ua로 분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u → \*ua의 분열현상이 발생한 방언 지역을 구체적으로 李方桂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위의 侯韻의 예자에서 보았듯이 閩方言의 白讀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3)</sup> 이에 우리는 原始閩方言 侯韻의 음가를 \*[-au]로 재구할 수 있고, 이 \*[-au]의 음가는 19세기말 북주방언을 반영하는 《字典》에도 존재하여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 3. 戈韻 合口

戈韻 合口に 속하는 한자들이 《字典》과 현대북주방언의 白讀은 [-uai] 운모를 지니지만 北京語, 蘇州方言, 長沙語, 南昌方言, 梅縣方言, 廣州方言 등의 방언에서는 모두 고모음 [o] 혹은 [ɔ]를 지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아래는 ‘簸破磨’에 해당되는 음가를 나열한 것이다.

上古音	中古音	《字典》	福州	廈門	北京	蘇州	長沙	南昌	梅縣	廣州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文	白			
簸	puai	pua	pou	puai	pɔ	puai	po	pua	po	pu	pɔ	pɔ	pɔ
破	phuai	phua	phou	phuai	phɔ	phuai	pho	phua	pho	phu	phɔ	phɔ	phɔ
磨	muai	mua	mou	muai	mɔ	muai	mo	mua	mo	mo	mo	mɔ	mɔ

戈韻 合口는 上古音에서 歌部에 속하여 저모음 [a]를 지닌다. 王力(1980:622)은 -uai(先秦) → -ua(漢) → -ua(南北朝) → -ua(隋唐) → -uo(宋) → -uo(元) → uɔ(明清) → -uo(現代)로 재구하고 있다. 北京語,

3) 侯韻의 白讀에 대해 閩南方言의 泉州方言, 閩北方言의 建甌方言, 莆仙方言의 仙游方言 등에서도 [au]로 발음되고 있다.

蘇州方言, 長沙語, 南昌方言, 梅縣方言, 廣州方言은 모두 宋代 이후의 고음화된 운모를 반영하지만 閩方言은 隋唐 이전의 음가를 반영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福州方言은 제1층인 先秦시대의 음가 \*[-uai]를 보존하고 있으며 廈門方言은 제2층의 음가 [-ua]를 반영하고 있어 閩地域 가운데에서도 戈韻 合口에 관한한 복주방언의 백독이 가장 오래된 층차를 반영하는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福州方言의 白讀이 아무리 중국 음운사 가운데 最古의 음가를 반영하더라도 文讀에서는 기타 방언과 같이 수당 이후의 음가를 충실히 반영하여 文讀에서 중고음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 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4. 支韻 開口

支韻 開口에 속하는 上古音 歌部의 재구음에 대해 王力(1980:622)은 -īai(先秦) → -īe(漢) → -īe(南北朝) → -i(隋唐) → -i(宋) → -i(元) → i(明清) → -i(現代)로 제시하고 있어 先秦의 저모음 [a]가 漢代와 南北朝 [e]를 거쳐 隋唐에서 현대까지 줄곧 [i]를 유지하는 등 시대층차별로 점점 고모음화되는 과정을 밝고 있다. 상고음에서 현대 북경음까지 이런 모음의 고음화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字典》의 경우 文讀은 북경어와 같이 모음이 모두 [i]로 반영되고 있지만 白讀의 경우 상고음의 저모음 [a] 혹은 漢代의 중모음 [e]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閩方言 계열의 기타 방언도 文讀은 모두 [i]를 지니지만 아래 예와 같이 白讀은 다양한 어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紙	蟻	倚	寄
《字典》	tsai	ŋie	khie	kie
福州	tsai	ŋie	khie	kie
福清	tsai	ŋia	khia	kia
建甌	tsyɛ	ŋiɛ	khie	kie

莆田	tsya	hia	khie	kie
廈門	tsua	hia	khia	kia
永安	fya	ya	khya	kya

支韻에 속하는 위의 閩方言 白讀의 韻母는 先秦의 저모음 [a]를 보존하는 [ai]와 [ia], 漢代와 南北朝의 중모음 [e]를 보존하는 [ie]와 [i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이미 고음화된 隋唐 [i] 이전의 모음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福州方言의 경우 위의 예자 이외에 ‘倚 [i](文) [ai](白)’, ‘騎 [khi](文) [khie](白) [khai](白)’와 같이 白讀은 [-ai] 혹은 [-ie]로 上古音層에서 南北朝層의 음가가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고, 文讀은 《字典》이후 현대북주방언까지 변화 없이 隋唐代層 [i]를 유지하고 있다.

‘寄’字에 대한 기타 여러 방언과 韓日漢字音を 살펴보면; 北京 [tei], 長沙 [tei], 蘇州 [tei], 南昌 [tei], 梅縣 [ki], 廣州 [kei], 廈門 [ki](文) [kia](白), 韓國漢字音 [ki], 日本의 漢音과 吳音 [ki] 등에서 보듯이 남방방언 계통인 梅縣方言, 廣州方言, 廈門方言은 성모 [k-]음과 白讀의 경우는 저모음 [a]를 보존하고 있다. 한편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에서는 모두 [ki]로 발음되어 구개음화 이전의 중고음을 보존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방방언은 전설모음 [i]의 영향으로 구개음화된 [te-]로 변화였다. 결국 ‘寄’의 어음변화는 原始閩方言(Proto-Min dialect) \*[kia]로 재구할 수 있으며, 중국어 방언 음운사에서 \*[kia] → [kie] → [ki] → [tei]로의 층차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19세기의 북주방언을 반영하는 《字典》의 ‘寄’는 [ki](文讀) [kie](白讀)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음층차상 중간단계에 속하며 남방방언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이는 《字典》의 문백이독은 중국음운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어음층차와 지역성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 5. 山攝 開口

山攝 開口에 속하면서 상고음에서 元部 \*[-an]에 속하는 예들을 통해

《字典》 문백이독의 흥미로운 현상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韻 例字	上古音	中古音	《字典》				福州	
			文	白	文	白	文	白
開一 寒 岸	ɲan	ɲan	ɲaŋ	ɲiaŋ	ɲaŋ	ɲiaŋ		
開二 刪 板	pean	pan	paŋ	peŋ	paŋ	peŋ		
開二 刪 慢	mean	man	maŋ	maiŋ	maŋ	maiŋ		
開三 仙 賤	dzian	dzien	tsieŋ	tsiaŋ	tsieŋ	tsiaŋ		
開三 仙 面	mian	mien	mieŋ	meiŋ	mieŋ	meiŋ		
開四 先 繭	kian	kien	kieŋ	keiŋ	kieŋ	keiŋ		
開四 先 前	dzian	dzien	tsieŋ	seiŋ	tsieŋ	seiŋ		

위의 예는 모두 상고음에서 元部 \*[-an]에 속하고 중고음 山攝 開口에 속하지만 韻과 等에서는 각기 다른 例字에 대한 음가를 나열한 것이다. 介音의 반영에서 文讀은 三四等에서만 [-i-]가 보이지만 白讀은 一等到 속하는 ‘岸’字 [ɲiaŋ]에도 [-i] 개음이 존재하는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는 白讀이 중고음의 규범을 준수하는 文讀과 다르게 매우 자유롭게 음이 변화하는 일례를 나타내주고 있다.

山攝의 子音韻尾는 文白異讀에 관계없이 모두 [-ŋ]로 끝나는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sup>4)</sup> 文讀의 경우 ‘板’字 중고음 [pan] → 《字典》/현대북주방언 [paŋ], ‘前’字 중고음 [dzien] → 《字典》/현대북주방언 [tsieŋ]과 같이

4) 閩方言의 陽聲韻尾는 閩南方言에서 [-m, -n, -ŋ]이 고루 보존되고 있지만 기타 閩東·莆仙·閩中·閩北方言에서는 [-ŋ]만이 존재한다. 劉曉南(2008: 92)에서 宋代 福建 詩人들의 用韻에 반영된 10세기에서 13세기 閩方言을 살펴본 결과 지역적으로 閩南의 泉州와 漳州의 시인들은 [-m, -n, -ŋ]을 혼합하여 압운하지 않았지만 閩北의 建州, 閩東의 福州, 閩中의 南劍州, 莆仙의 興化 시인들은 모두 [-m, -n, -ŋ]을 섞어 압운하였다. 이는 당시 운미가 민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뚜렷하게 구분되어 상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주방언은 邵榮芬(1994: 360)에 따르면 明末에 이미 陽聲韻尾 [-m, -n]의 [-ŋ]으로의 합병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17세기 《戚林八音》에서도 중고음의 양성운미 [-m, -n, -ŋ]은 이미 모두 [-ŋ] 하나로 합병되었고, 《字典》과 현대북주방언에서도 그대로 [-ŋ]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중고음의 주요모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白讀의 경우 [-ian] [-ein] [-ain] 등 다양하게 운모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福州方言에 [eiŋ]와 [aiŋ] 같은 雙韻尾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쌍운미는 주요모음 뒤에 운미가 두 개가 존재하는 특수한 음운구조로 福州方言 가운데 [-eiŋ], [-ouŋ], [-øyŋ], [-eiʔ], [-ouʔ], [-øyʔ]와 같이 ‘주요모음+모음운미+자음운미’ 구조를 가리킨다. 이 독특한 음절구조는 17세기의 북주방언 음계를 반영하는 《戚林八音》에는 나타나지 않고 19세기의 북주방언을 반영하는 《字典》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雙韻尾는 ‘燈, 釘, 東, 賓, 春, 銀’ 등 6개 운의 비음운미,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입성운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sup>5)</sup> 이에 현대 북주방언 음운사 연구에 본 연구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 《字典》이 얼마나 중요한 지 우리는 알 수 있다.

‘板’과 ‘慢’은 똑같이 중고음 ‘刪’韻과 《字典》 ‘燈’韻에 속하지만 [-eiŋ]과 [-ain] 두 음가가 공존하는 이유는 바로 ‘성조에 따라 운모가 변한다(隨調變韻)’는 북주방언의 독특한 ‘變韻現象’ 때문이다. 북주방언에는 上平, 下平, 上聲에서는 ‘本韻’으로 발음되고 去聲(즉 上去와 下去)과 上入에서는 ‘變韻’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다. 變韻現象은 17세기 북주방언을 반영하는 《戚林八音》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북주방언을 묘사한 《字典》에는 존재하므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字典》의 33개 韻目 가운데 去聲과 上入에서 變韻現象이 발생하는

5) 《字典》의 ‘雙韻尾’와 관련된 韻目은 ‘燈, 釘, 東, 賓, 春, 銀’ 등 6개로 17세기 福州方言을 반영하는《戚林八音》, 19세기말의 《字典》그리고 現代福州方言에 나타나는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鼻音韻尾

16세기	19세기	현대
燈 eŋ	→ eiŋ/aiŋ	→ eiŋ/aiŋ
釘 oŋ	→ ouŋ/auŋ	→ ouŋ/auŋ
東 æŋ	→ øŋ/aøŋ	→ øyŋ/øyŋ
賓 iŋ	→ iŋ/eiŋ	→ iŋ/eiŋ
春 uŋ	→ uŋ/ouŋ	→ uŋ/ouŋ
銀 yŋ	→ yŋ/øyŋ	→ yŋ/øyŋ

## (2) 入聲韻尾

16세기	19세기	현대
燈 ek	→ eik/aik	→ eiʔ/aiʔ
釘 ok	→ ouk/auk	→ ouʔ/auʔ
東 æk	→ øk/aøk	→ øyʔ/øyʔ
賓 ik	→ ik/eik	→ iʔ/eiʔ
春 uk	→ uk/ouk	→ uʔ/ouʔ
銀 yk	→ yk/øyk	→ yʔ/øyʔ

韻目은 春, 秋, 賓, 須, 杯, 孤, 燈, 輝, 銀, 釭, 之, 東, 催, 初, 溝 등 15개가 해당된다.<sup>6)</sup> 이로 인해 《字典》의 ‘燈’韻에 속하는 ‘板’과 ‘慢’ 가운데 ‘板’字는 上上이므로 本韻 [-eiŋ]로 발음되지만 ‘慢’字는 下去이므로 變韻 [-aiŋ]로 발음된 것이다. 즉, 기저음(underlying sound) /-eiŋ/ 음가가 平聲·上聲에서는 [eiŋ]로 발음되고, 去聲에서는 [aiŋ]으로 발음되어 이 두 음가는 중국인에게는 같은 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중고음에서는 山攝 開口 속하면서 상고음에서는 元部 \*[-an]에 속하는 福州方言 白讀 韻母의 어음층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福州方言 白讀	-(i)an	-(i)aŋ	-(i)eŋ	-(i)eiŋ	-eiŋ(本韻)/aiŋ(變韻)

제1층은 상고음이며 제3층은 17세기 《戚林八音》의 음가이다. 상고음 [ian]은 먼저 제2층에서 운미 [-n]이 [-ŋ]으로 설근음화되고 제3층에서 주요모음 [a]가 개음 [i]의 영향으로 [e]로 전설모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5층은 19세기말 《字典》과 현대북주방언의 음가로 기저음 /-eiŋ/에서 성조에 따라 [-eiŋ](本韻, 平聲과 上聲에서) 혹은 [-aiŋ](變韻, 去聲에서)이 나타난 것이다. 제3층 [-(i)eŋ]이 제5층 [-eiŋ]으로 변하기 위해

6) ‘變韻現象’의 일례로 《字典》에 보이는 ‘春, 山, 之, 過’ 네 개 韻의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上平	上上	上去	上入	下平	下上	下去	下入
春	uŋ	uŋ	ouŋ	ouk	uŋ	uŋ	ouŋ	uk
山	aŋ	aŋ	aŋ	ak	aŋ	aŋ	aŋ	ak
之	i	i	ei	ei?	i	i	ei	i?
過	uo	uo	uo	uo?	uo	uo	uo	uo?

위에서 보듯이 ‘春[uŋ]’과 ‘之[i]’ 韻은 去聲(上去와 下去 포함) 및 上入에서 운모가 각각 [ouŋ/ouk]과 [ei/ei?]으로 변하고, 기타 ‘山’과 ‘過’ 韻은 성조에 따라 운모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는 제4층 [-i)eiŋ]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i)eiŋ]의 개음 [i]와 주요 모음 [e]의 강한 前舌性的 영향으로 운미 [-ŋ] 앞에 또 다른 [i]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성조에 따라 운모가 변하는(隨調變韻)’ 福州方言의 독특한 ‘變韻現象’은 福州地方을 중심으로 한 閩地域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19세기말 《字典》에 처음 나타나고 있어 이 문헌의 중요성을 충분히 웅변하고 있다.

## V. 맺는 말

본 연구는 19세기말 선교사 볼드윈(C.C. Baldwin)과 맥클레이(R.S. Maclay)가 공동으로 편찬한 《福州方言拼音字典(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1897년)에 나오는 文白異讀字만을 대상으로 文讀(글말)과 白讀(입말)에 반영된 福州方言의 時代層次와 기타 방언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地域性을 살펴보았다.

《字典》(《福州方言拼音字典》을 줄여서 칭한 것)의 일정 부분을 무작위 통계를 내보면 약 4%만이 文白異讀을 갖추었고 나머지 한자는 하나의 음가만 존재한다. 19세기말 福州方言을 반영하는 《字典》과 현대북주어의 문백이독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발음이 거의 유사하다. 어음 층차의 관점에서 文讀은 현대 각종 중국방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중고음을 충실히 반영하지만 白讀은 상고음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어 음운사에서 錢大昕이 ‘古無輕唇音說(상고음에는 경순음이 없다는 설)’과 ‘古無舌上音說(상고음에는舌上音이 없다는 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상고음의 특징을 지닌 예를 《字典》과 현대북주방언에서도 白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다른 지역 방언에서는 순치음으로 변했지만 上古音의 雙唇音 [p-, ph-]를 보존하고 文讀은 후기중고음 [f-]가 [h-]

로 변환된 음을 반영되고 있으며, 知系 白讀은 상고음 [t-]를 유지하고, 文讀은 대부분 [t-]를 보존하며 일부는 과찰음 [ts-] 혹은 마찰음 [s-] 변하였다.

三等合口에 속하는《字典》의 白讀에는 [-uo]와 [-ieu]가 있는데, [-uo]는 상고음을 반영한 것이라면 [-ieu]는 중고음 [-iü]에서 중간에 [e] 음이 첨가된 것이며, 文讀 [-øy]는 [-iü](중고음) → [-y](17세기 복주방언을 반영한 《戚林八音》) → [-øy](《字典》과 현대복주방언)의 층차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字典》에서 支韻 開口에 속하는 ‘倚 [i](文) [ai](白)’, ‘騎 [khi](文) [khie](白) [khai](白)’와 같이 白讀은 [-ai] 혹은 [-ei]로上古音層에서 南北朝層의 음가가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고, 文讀은 隋唐代層 [i]를 유지하고 있다.

《字典》에 보이는 白讀은 상고음뿐만 아니라 중고음 심지어 가장 많은 어음의 변천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북경보다 더욱 발전된 어음층을 반영하고 있다. 《字典》의 ‘畝’字 白讀 [mu]의 경우 현대복주방언에 이르러 [muo]로 변하여 [-u] → [-uo]의 변화과정을 밝힌 것으로 보아 文讀 [meu]는 물론 북경어의 [mu]와 비교해도 어음층차가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文讀은 규범적인 중고음을 엄격히 반영하지만 白讀은 저 멀리 상고음에서 현대북경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음가까지 있어 매우 다양한 시대층차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福州方言은 閩地域의 동쪽 즉, 閩東方言에 속하여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어음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성조에 따라 운모가 변한다(隨調變韻)’는 ‘變韻現象’은 福州地方을 중심으로 한 閩地域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上平, 下平, 上聲에서는 ‘本韻’으로 발음되고 去聲(즉 上去와 下去)과 上入에서는 ‘變韻’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17세기 福州方言을 반영하는 《戚林八音》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세기말 복주방언을 묘사한 《字典》에는 존재하므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福州方言과 閩方言 연구에 있어서 《字典》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參考文獻>

- 董同龢,《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1983.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音學教研室 編《漢語方音字彙》(第二版),文字改革出版社,1989.
- 劉曉南,《漢語歷史方言研究》,上海人民出版社,2008.
- 邵榮芬,〈明代末年福州話的韻母和聲調系統〉,《音韻學研究》3: 351-377, 1994.
- ,〈明代末年福州話的聲母系統〉,《邵榮芬音韻學論集》,首都師範大學出版社,1997.
- 王力,《漢語語音史》,王力文集 第10卷,山東教育出版社,1980.
- 游汝杰,《漢語方言學導論》,上海教育出版社,2000.
- 李方桂,〈上古音研究〉,《清華學報》9: 1-61, 1971.
- 李如龍·梁玉璋·陳天泉,〈福州話語音演變概說〉,《中國語文》4: 287-293, 1979.
- 李如龍,《方言與音韻論集》,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1996.
- 李珍華·周長楫 編纂,《漢字古今音表》,中華書局,1999.
- 이해우,〈閩方言 梗攝 文白異讀의 語音層次〉,《중국어문학논집》59: 59-78, 2009.
- 張光宇,《切韻與方言》,臺灣商務印書館,1990.
- ,《閩客方言史稿》,南天書局有限公司,1996.
- 陳章太·李如龍,《閩語研究》,語文出版社,1991.
- 陳澤平,〈福州話的韻母結構及其演變模式〉,《言語學論叢》13: 77-98, 1984.
- ,《福州方言研究》,福建人民出版社,1998.
- ,〈十九世紀的福州音系〉,《中國語文》5: 431-440, 2002.
- Chang, Guang-Yu. "Comparative Min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6.

- Maclay, R. S and Baldwin, C. C. *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 Foochow: Foochow Methodist Episcopal Mission Press. 1897.
- Norman, Jerry. "Chronological Strata in the Min Dialects," 《方言》4: 268-274. 1979.
- \_\_\_\_\_. "The Min Dialects in Historical Perspective," *JCL*, Monograph Series No.3. *Languages and Dialects of China*, 123-142. 1991.
- \_\_\_\_\_ and Tsu-lin Mei. "The Austroasiatics in Ancient South China: Some Lexical Evidence," *Monumenta Serica* 32: 274-301. 1976.
- Pulleyblank, E.G.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 Ting, Pang-hsin. "Derivation Time of Colloquial Min from Archaic Chinese," *BIHP* 54.4: 1-14. 1983.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ronological strata and regional property of Literary and Colloquial Reading in *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 which was compiled by C. C. Baldwin and R. S. Maclay in 1897. The Literary and Colloquial Reading occupies about 4% of the characters in *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 It can be said that the Literary Reading reflects Middle Chinese strictly, however, Colloquial Reading shares the traces of Old Chinese and even the most advanced chronological strata. Colloquial Reading '畝' [muɔ] has experienced the process of [-u] → [-uɔ], which has undergone the much more advanced sound change than Mandarin [mu]. The phenomenon that the finals of the Fuzhou(福州) dialect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tonal differences is originated from *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

Key Words : 時代層次(Chronological Strata), 地域性(Regional Property), 文白異讀(Literary and Colloquial Reading), 福州方言拼音字典(*The Alphabetic Dictionary of the Foochow Dialect*), 福州方言(Fuzhou(福州) dialect), 閩方言(Min(閩) dialect), 中國方言(Chinese dialect)